

■ 2017년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심의 총평

- 일시 : 2017. 1.20(금) 14:00~16:30
- 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 전체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화영, 우찬제, 이하석, 장영주, 정지아

2017년도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심사는 기 지원대상 다섯 곳과 신규 지원공간 다섯 곳 등 총 열 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특화된 전략의 유무, 운영계획과 재정계획의 현실성, 적극적인 홍보계획의 유무 등을 심의의 기준으로 삼았다. 기 지원대상의 경우, 2016년도의 종합평가 결과 50%,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50% 반영하였으며, 신규 지원대상의 경우 전년도의 평가가 없었던 관계로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100% 반영하였다.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 지원하는 창작공간들의 활성화는 의미있는 일이나 문제는 이러한 공간들의 재정자립도였다. 심의위원 전원은 문학집필공간이 장기적으로 문예기금 외의 재정적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100% 지원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하였다. 기 지원대상의 지원금이 다소 줄어들고, 신규 지원공간의 지원금을 확대한 것도 그러한 결과였다. 신규 지원공간의 경우, 지원금 없이는 실질적 출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역시 추후에는 재정적 활로를 모색해야만 국가지원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의 경우, 지원하는 기간에 한정을 두거나 해마다 일정 정도 삭감하여 자립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수의 공간이 지원금을 독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심의위원 전원의 의견이었다.

심의위원 일동